

Paper Session 3	발표일시(한국시간): 2021.12.28(화) 11:00~12:30
Environment and Bio-Ethics	

## 논문 1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여성불자들: 세대간 평등의 구현

데브라 T. 부드로(Debra T Boudreaux) / 번역 이주현

### 요약문:

#### 연구 과제 및 연구 목적

COVID-19 로 인하여 제기된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기술의 효율성을 깨우쳐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여성과 소녀들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생태학적 악화 및 그것이 사람들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얽혀있기에, 그것들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지하고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990 년 대만 자제공덕회 설립자 증엄(證嚴) 스님은 "박수로 환영하는 환경 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clapping hands)"를 제안하였고, 자제공덕회의 봉사자들에게 자율적으로 환경보호를 하도록 촉구했다. 스님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생이용을 청하였다.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은 나이, 계층, 배경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거리를 가꾸는 곳으로 이용하자고 제한했다. 지구에 대한 환경보호로부터 정신에 대한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자제공덕회는 건강한 섭생을 지지하고,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고기를 덜 먹는 “간소한” 삶을 추구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도덕을 함양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환경에 대한 앎을 이행한다.

#### 방법

COVID-19 팬데믹, 불평등의 심화, 인종차별의 증가와 기후 위기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의 해법도 찾으면서, 기존의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발전시킨다.

환경보호 재활용 기관 또는 매일 지구 보호를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우리의 음식, 의복, 주거와 교통수단을 간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을 착각 속에서 깨어나 변화시킬 수 있는 롤모델을 설정한다. 자아성찰과 참회를 한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옳은 일을 계속 실천하면 된다.

#### 주요결과

종교 활동가들은 기후 옹호에 있어 강력한 세력이다. 이들은 인종 정의, 젠더 기반 폭력 종식, 지역과 종교 및 전 지구적으로 토착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과 같은 상호 연결된 문제들을 다룬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130 만 이상이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

2019 년 말 현재, 대만에는 89,585 명 이상의 환경 보호 자원봉사자(65%가 여성)가 매일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풀뿌리 여권주의 기후 주도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기존의 행동패턴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결론

환경 보호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법은 우리가 삶에서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 법에 입각해야만 우리의 길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성과 소녀들은 평화구축, 갈등예방 및 기후갈등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행동과 자비의 불자 이노베이션”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공급과 수요 사슬에 통합될 수 있다.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종교 활동가들의 독특한 역할과 우리가 봉사하는 공동체에서 미치는 사랑의 힘을 인지하라.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변화의 촉매가 되기 위해 종교 및 전통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얻은 위대한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라.

## 발표자 이력:

데브라 부드로(**Debra Boudreaux**)는 자제공덕회의 선임 봉사자이다. 자선, 보건, 교육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회운동 프로젝트에서 일한 33 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 데브라는 자제공덕회 의료재단(Buddhist Tzu Chi Medical Foundation)의 최고경영자였다. 불자 및 천주교신자의 종교간 대화를 이끌고, UN 다종교 자문위원회의 회원, 유엔 공보국 세계 비영리단체 집행위원회의(Global NGO Executive Committee of UN DGC) 사무총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종교회의이사회(Board of Trustee of Parliament of World Religion)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데브라는 “감사, 존경, 사랑의 경이로운 연화경을 생각하라(JingSi Wonderous Lotus Sutra of Gratitude, Respect and Love)”는 자제공덕회의 설립자 증엄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제공덕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 논문 2

칼라차크라 탄트라 전통에 따른 환경적 상호의존성

베스나 월러스(Vesna A. Wallace)/ 번역 이주현

요약문:

“외부(환경) 와 마찬가지로 몸 안에도 있다(*yathā bāhye tathā dehe*)”라는 칼라차크라 탄트라 전통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환경, 개인, 그리고 사회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칼라차크라 탄트라 전통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압축하고 있다. 칼라차크라 탄트라(*Kālacakrantra*)와 가장 권위있는 산스크리트 해설서인 “녹슬지 않는 빛(*the Stainless Light*)”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과 인간 사이의 연관성은 단지 상징적 의미로만 볼 일이 아니다. 여기서 “자연”(*prakṛti*) 이라는 단어는 우주, 지구, 물, 불 그리고 공기의 요소적인 부분들을 만드는 자연환경의 물질적인 구성과 그들의 변형, 그리고 인간의 정신생리학적 구성의 물질적 본질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자연계는 사람과 불가분한 관계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결과를 초래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초점은 11 세기 인도의 불교 전통이 환경, 개인 및 공동체 간의 관계성에 대해 이해한 방식과 개인 및 집단 카르마가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에 있다.

발표자 약력:

베스나 월러스(Vesna A. Wallace)는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의 종교학과의 불교학 교수이다. 관심 분야는 남아시아와 몽고의 불교전통이며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글을 기고하고 5 권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 논문 3

#### 불교 생명윤리와 페미니즘 생명윤리의 유사점과 차이점

구르밋뜨 코오르(Gurmeet Kaur)/ 번역 유화정

##### 요약문:

태어남과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다양한 종교에서 오래전부터 폭넓게 다루어온 주제이다. 1900년대의 도덕적·윤리적 이슈는 인간 삶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관련되었고, 이 문제에 관한 윤리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윤리’라는 새로운 연구분야가 생겨났다. 2000년대에는 데미언 키온(Damien Keown)을 포함한 수많은 불교 학자들이 생명윤리 분야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했다. 그는 불교의 관점에서 생명의 시작, 수정과 임신, 임신 중절, 안락사라는 인생의 중요 사안들을 다루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주제들은 페미니즘 담론일 뿐만 아니라 윤리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윤리학은 생명윤리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을 바꾸고, 여성적 관점에서의 여성 돌봄, 교차성, 관습적 도덕관념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둔다. 불교 생명윤리와 페미니즘 생명윤리 간의 공통점은 이들이 사회제도와 전통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와 페미니즘은 지혜와 그 결과물, 즉 보편적 진리로 실현되어야 할 당면한 도덕적 당위성을 추구한다. 안타깝게도, 둘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술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불교 생명윤리와 페미니즘 생명윤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더욱 인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또한 수준 높은 자료 분석을 통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

##### 발표자 약력

구르밋뜨 코오르(Gurmeet Kaur): 판잡대학교(Panjab University) 여성개발학부센터 (Department Cum Centre for Women's Studies and Development) 수석연구원이며, 사회과학 교육/개발 연구소(Institute of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젠더연구를 가르쳤다. 판잡대학교의 티베트 교수 비제이 쿠마르 싱(Vijay Kumar Singh)의 지도 하에 불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며 불교학, 젠더, 강제이주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포커스를 둔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싱글 걸 차일드(Swami Vivekananda Single Girl Child) 장학금을 받았고, 다양한 자격으로 다크쉬 IBM(IBM Daksh)과 세이지 서스테인어빌리티(Sage Sustainability) 그리고 위캔 인터네셔널(WECAN International)과 함께 일했다. 6개 이상의 국제 및 국내 학회에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참석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블룸스베리아카데믹(Bloomsbury Academic) 출판사의 북아메리카 블룸스베리 종교지(Bloomsbury Religion North America)에 "불교와 여성"을 발표했다.

## 논문 4

### 장기기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다이아나 쿠센스(Diana Cousens)/ 번역 은산스님

#### 요약문:

현대 의학은 장기 기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불교도들이 숙고해봐야 할 주제로서, 장기를 기증하는 일이 보시의 한 형태이며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인들 사이에 장기 기증에 대해 하나로 통일된 견해는 없다. 그 견해는 대승 또는 소승의 구분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죽음의 단계에 대한 관점에 따라 형성된다. 2020 년 빅토리아 불자협회(Buddhist Council of Victoria/BCV)는 장기 기증에 관한 규약을 채택하고 웨스턴 헬스(Western Health)라고 불리는 병원 그룹에 조언을 제공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다양한 문제들과 BCV 규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부처님께서 보시를 포함한 선행을 여러 생애 걸쳐 닦은 뒤 불도를 완성하셨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이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타카 설화에서 발견된다. 때때로 이러한 보시 중에는 자신의 몸을 잘라 그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사례도 등장한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의 하나는 부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잘라 굶주린 새끼를 가진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셨다는 것이다. 네팔의 나모붓다(Namo Buddha) 사찰은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여겨지며 순례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몸의 일부를 보시한다는 생각은 불교 전통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소승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불교도들 중에서는 이런 보시에 이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베트남과 중국, 일본, 한국, 특히 티벳의 대승 불교 신도들에게 장기기증과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된다. 이 생에서 다음생으로 이 몸이 여행하며 의식을 포함한 사람의 미묘한 자질들이 옮겨가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좋은 곳으로의 환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안하고 부드러운 이행(移行)이 필요하며 장기기증은 망자의 의식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VC 의 규약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 빅토리아 불자협회의 장기기증에 대한 규약

1. 불자들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 후 장기 및 조직을 기증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잠재적 기증자는 살아생전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밝혀 두어야 한다.
3. 일부 불자들은 장기를 적출하기 전에 시신 근처에서 적어도 8 시간 동안 염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요구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4.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는 고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평생서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
5. 고인을 대할 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
6. 살아있는 기증자는 (불법) 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7. 살아있는 기증자는 착취당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한 권리장전과 변호사 혹은 대변인이 있어야 한다.

8. 살아있는 기증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발표자 이력:**

다이에나 쿠젠스(Diana Cousens)는 히말라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티베트 보장 전통과 불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샤카디타 오스트레일리아의 창립 회장이며, 이번 발표는 샤카디타 국제 대회 of 여섯 번째 발표이다. 빅토리아 불자협회(Buddhist Council of Victoria)와 호주 불자협회연합(Federation of Australian Buddhist Councils)의 위원이며 호주 가톨릭 대학(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의 명예회원이다. 20 년 넘게 종교 간 대화에 관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으며 결혼식과 장례식을 집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